

# 훔덜린의 시 「에게해 군도(群島)」<sup>1)</sup>

황 윤 석  
(독문과 교수)

## I

훔덜린의 대표작의 하나인 비가 「빵과 포도주」는 옛 그리스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앞으로 올 신들과 인간들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테마로 하고 있다. 이 비가 보다 일년여 앞서 1800년 봄에 시작하여 그 해 가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시 「에게해 군도」도 같은 테마를 다루고 있어 앞선 비가의 테마를 선취하고 있는 셈이고 따라서 분명 일면의 비가적 성격을 띄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시는 비가 운율인 2행연구(Distichon)형식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주로 서사시에 쓰이는 헥사메터 형식을 취하고 있는 독특한 시이다. 헥사메터는 또한 고대의 <호머찬가>(Homerische Hymnen) 이래 찬가운율로도 쓰였고 훔덜린과 동시대인인 슈톨베르크(Friedrich von Stolberg)나 포쓰(Voß)도 이 운율로 찬가를 썼다. 훔덜린 자신도 이미 「떡갈나무들 Die Eichbäume」이나 「호기(瀨氣)에 붙여 An den Äther」등과 같은 그의 초기 찬가들에서 이 운율로의 시작(詩作)을 시도한 바 있다.<sup>2)</sup> 즉 헥사메터는 서사적 성격과 찬가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운율형식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앞으로 시 분석

\* 이 연구는 1997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농협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Archipelagus라는 말은 오늘날은 Archipel 혹은 Archipelagos로 표기되며 일반적으로 <군도>의 뜻으로 쓰이나 원래는 <에게해 군도>를 뜻했고 여기서도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 더 나아가 싸이프러스와 나일강이 언급되고 소아시아의 메안더강과 카이스터강까지 노래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시인은 <에게해 군도>를 지중해 동부 전체 및 그 연안까지로 확대해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연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시의 범신론적 함의에 따라 <대양신>의 뜻까지 겸하고 있다. Vgl. Brockhaus Enzyklopädie, 1987<sup>19</sup>, Bd 2. S. 81; Erläuterungen zu diesem Gedicht, in : F. Hölderlin : Sämtliche Werke (Große Stuttgarter Ausgabe), hrsg. v. Friedrich Beißner, Stuttgart 1943ff., Bd 2. 2. S. 648. 이하 본 판의 인용은 권수와 면수로만 표시함. <에게해 군도>는 본 판의 S. 103~112에 수록 되어 있음.

2) Vgl. Kommentar zu diesem Gedicht, in : F. Hölderlin : Sämtliche Werke u. Briefe, 3 Bde, hrsg. v. Jochen Schmidt, Ffm 1992, Bd 1, Gedichte, S. 682. 이하 본서는 SWB로 표시함.

3) 최초의 훔덜린 역사비판판본을 펴낸 헬링라트(Hellingrath)만 해도 이 시를 비가 그룹에 소속시키고 있으나, 후에 나온 역사비판판본들인 바이프너(Beißner)의 슈툿가르트 판본이나 자틀러(Sattler)의 프랑크푸르트 판본에서는 각각 <개별 형식들> <암부스와 헥사메터 형식들>이라는 그룹을 따로 만들어 여기에 이 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후자들에게는 이 시가 갖고 있

과정에서 이 시의 이러한 면 역시 고찰될 것이다.

비가 「빵과 포도주」도, 시 「에게해 군도」도, 신들과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세계가 앞으로 분명히 올 것이라는 기대를 노래한다는 데에서 시의 궁극적 의미를 찾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 9연으로 된 「빵과 포도주」가 거의 같은 길이의 3부로 이루어지면서 각각, 밤의 시대로서의 현재, 낮의 시대로서의 옛 그리스 세계, 앞으로 올 새로운 세계를 균형있게 노래하고 있음에 비해, 역시 내용상으로 3부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시 「에게해 군도」는 각 부의 길이가 각 61행, 138행, 97행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빵과 포도주」에서의 주 테마는 제3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시 전체의 ⅔에 해당하는 제 1, 2부에서는 주로 범신론적으로 이해된 자연 자체의 조화로운 삶이나,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삶이 노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시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자연과 인간세계와의 조화로운 삶을 테마로 하고 있는 제2부가 138행으로 시 전체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 시 분석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시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인류문화의 발생조건을 천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페르샤와의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멸망했던 아테네가 어찌하여 페르샤를 물리치고 도시재건과 문화의 번성을 이룰 수 있었으며, 반면에 페르샤는 일시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종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점이다. 시인은 여기서 천착된 결과를 이제 시의 제3부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세계에 적용하면서, 다가올 새로운 문화에 대한 환상을 전개한다. 서양역사의 발전을 3단계로 압축해 노래했던 비가 「빵과 포도주」의 탄생에는 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결론을 유도하게 했던 전제가 천착된 「에게해 군도」의 선행이 아마도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가장 짧은 8행짜리 연(제4연)에서부터 가장 긴 78행짜리 연(제11연)까지 각각 다른 길이의 총 12연 296행으로 이루어진 이 장시는 시인의 많은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3부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인의 비가들이 대개 8개 내지 9개의 2행연구로 된 규칙적인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에 비하면 훨씬 자유스러운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 점이 이미 이 시의 찬가적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테마상으로 시 전체의 구성을 보면 제1연부터 4연까지의 61행이 제1부를, 제5연부터 10연까지의 138행이 제2부를, 나머지 두 연의 97행이 제3부를 이루고 있다.

이제 제1부에서부터 순서대로 시를 분석해가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비가적 성격뿐만 아니라 찬가적, 서사적 성격까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시의 장르적 위치 역시 규명해보려 한다.

---

는 비가적 성격보다는 다른 성격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크푸르트 판본에서는 이 시를 <비가적 찬가>(der elegische Hymnus)라고 불러 이미 이 시의 찬가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II

시는 에게해에 다시 찾아드는 봄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미 첫 연부터 에게해 군도는 범신론적으로 의인화된 자연의 모습을 띄면서 자연의 모든 존재를 하나로 어우른다. <두루미>(v. 1)와 <배들>(v. 2)이 다시 찾아오고, <바람>(v. 3)이 불어 오며, <돌고래>(v. 3)가 물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며, 이오니아에 <꽃>(v. 5)이 핀다. 의문문의 형태로 이렇게 에게해 세계를 불러낸 다음, 곧바로 제2연에서 3연에 이르기 까지 에게해 군도의 찬미가 이어진다.

권능있는 이여, 당신은 언제나와 같이 여전히 살아 있으며  
당신의 산들의 그늘에서 쉬고 있구나. 젊은이의 팔로 여전히  
당신의 사랑스런 나라를 열싸안고 있구나, 오 아버지시여, 당신의 딸들  
모두, 꽃피어 있는 당신의 섬들 모두 건재하고 있구나!  
크레타 굳건히 서있고 짙은 월계수 둘러친 잘라미스 푸르러지며  
일출의 시간에 사방에 빛의 화환 두른 델로스가  
그 감격찬 머리를 쳐든다. 그리고 테노스와 히오스는  
보라색 열매로 가득하고, 술취한 언덕에서는  
사이프러스 사람들의 음료가 솟아나고 있으며, 칼라우리아에선  
은빛 시냇물이 언제나와 같이 아버지의 태고적 바닷물로 흘러든다.  
모두들 여전히 살아있구나, 영웅들의 어머니인 섬들  
해마다 꽃을 피운다. [……]

Immer, Gewaltiger! lebst du noch und ruhest im Schatten  
Deiner Berge, wie sonst; mit Jünglingsarmen umfängst du  
Noch dein liebliches Land, und deiner Töchter, o Vater!  
Deiner Inseln ist noch, der blühenden, keine verloren.  
Kreta steht und Salamis grünt, umdämmert von Lorbeern,  
Rings von Stralen umbüht, erhebt zur Stunde des Aufgangs  
Delos ihr begeistertes Haupt, und Tenos und Chios  
Haben der purpurnen Früchte genug, von trunkenen Hügeln  
Quillt der Cypriertrank, und von Kalauria fallen  
Silberne Bäche, wie einst, in die alten Wasser des Vaters.  
Alle leben sie noch, die Heroënmütter, die Inseln,  
Blühend von Jahr zu Jahr, [……] (v. 9~20)

첫 연을 돈호법(Apostrophe, <변함없는 이여> v. 8)으로 끝내더니, 둘째 연을 다시 대양신을 향한 돈호법(<권능있는 이여> v. 9)으로 시작한다. 돈호법은 찬가문학의 전통적 문체특징의 하나이다. 이어 역시 특징적 찬가문체인 열거법(Aufzählung)으로

찬미의 대상의 모든 중요한 특성들이 나열된다. 에게해의 섬들이 대양신의 딸들로 불려지며 제각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찬미된다. 우람한 산악이 있는 크레타는 <굳건히 서 있고>, 페르사와의 해전에서 그리스에게 승리를 안겨준 곳 잘라미스는 <질은 월계수로 둘러쳐져>있으며, 빛의 신 아폴로의 출생지인 델로스는 <사방에 빛의 화환 두르고>있고, 싸이프러스와 마찬가지로 유명한 포도주 산지인 테노스와 히오스는 <보라색 열매 가득하고>, 샘이 많은 섬 칼라우리아에선 <은빛 시냇물이 아버지의 태고적 바닷물로 흘러든다>. 대양신과 섬들과의 관계가 부녀관계로, 또 바다와 강의 관계가 부자관계로 규정지워지면서 자연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간의 조화로운 삶이 노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에게해와 그 안의 섬들과의 조화로운 삶이 그려진 후, 시인의 시선은 이제 천상으로 향한다.

저 높은 곳의 세력인 천상에 계신분들 [……]  
 [……] 그 옛 놀이친구들 역시  
 예전처럼 당신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자주 황혼녘에  
 아시아의 산에서부터 성스러운 달빛이 비쳐들고  
 별들이 당신의 물결속에서 해후할 때  
 당신은 천상의 광휘로 빛난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듯  
 당신의 바닷물도 변한다. 천상 형제들의 노랫가락,  
 그들의 밤의 노래가 당신의 사랑하는 가슴속에서 메아리친다.  
 그러다가 만물을 변용시키는 낮의 태양이 떠오르고,  
 [……]  
 그 시인파도 같은 태양이 언제나 아침이면 마련해주는  
 금빛 같은 꿈속에서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활동을 시작할 때면,  
 슬퍼하는 신 당신에게, 당신에게 그 태양은 더욱 즐거운 마력을 보낸다  
 [……]  
 그리고 호기(瀨氣)가 당신을 얼싸안지 않는가? 당신의 사자인 구름이  
 저 높은 곳의 호기로부터 번개라는 신들의 선물 안고 당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당신은 그 구름을 온 나라에 보내어,  
 뜨거운 해안에서 뇌우에 취한 숲이 포효하며  
 당신 더불어 물결치고, [……]

Auch die Himmlischen, sie, die Kräfte der Höhe, [……]  
 [……] auch sie, die alten Gespielen,  
 Wohnen, wie einst, mit dir, und oft am dämmernden Abend,  
 Wenn von Asiens Bergen herein das heilige Mondlicht  
 Kömmt und die Sterne sich in deiner Wooge begegnen,  
 Leuchtest du von himmlischem Glanz, und so, wie sie wandeln,  
 Wechseln die Wasser dir, es tönt die Weise der Brüder  
 Droben, ihr Nachtgesang, im liebenden Busen dir wieder.

Wenn die allverklärende dann, die Sonne des Tages,  
 [ …… ] da ist,  
 Dann die Lebenden all' im goldenen Traume beginnen,  
 Den die Dichtende stets des Morgens ihnen bereitet,  
 Dir, dem trauernden Gott, dir sendet sie froheren Zauber,  
 [ …… ]  
 Und umfängt der Aether dich nicht, und kehren die Wolken,  
 Deine Boten, von ihm mit dem Göttergeschenke, dem Strale  
 Aus der Höhe dir nicht? dann sendest du uber das Land sie,  
 Daß am heißen Gestad die gewittertrunkenen Wälder  
 Rauschen und woogen mit dir, [ …… ] (v. 25~47)

천상의 세력들은 에게해의 <옛 놀이친구들>이자 <형제들>이다. 천상과 지상은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이다. 성스러운 달빛이 지상을 찾는 것도, 별들이 물결속에서 출렁이는 것도, 또한 태양이 그 <금빛> 빛속에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것도 모두 그 증거인 것이다. 시인은 달의 변화와 간만변화의 관계에서 (<그들이 변하듯 당신의 바닷물도 변한다> v. 32f.), 별들이 부르는 <밤의 노래><sup>4)</sup>에서, 또한 태양이 <시인파도 같이> 그 찬란한 빛속에 만물을 아름답게 변용시키는 데에서 천상과 지상의 우주적 조화를 보는 것이다. 호기(瀨氣, Äther)가 에게해를 <얼싸안는> 것도 이러한 우주적 조화의 표현이며 동시에 정신과 자연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호기는 모든 것을 꿰뚫고 통일을 이루려는 <세계영혼 Weltseele>의 상징이기 때문이다.<sup>5)</sup> 구름은 대양이 <저 높은 곳>으로 보낸 대양의 사자(使者)이다. 대양에서 증발한 물이 구름이 아니던가. 구름은 다시 <번개라는 신들의 선물 안고>(v. 44) 비가 되어 내려 강물이 되어서 마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아들처럼 대양으로 흘러든다. 메안더강과 카이스터강이 <아버지>에게해로 흘러들고, 나일강 역시 먼 길을 내려와 <아버지>대양을 맞아 반가움 못이겨 <활짝 벌린 팔을 내민다>(v. 48~53).<sup>6)</sup> 대양-구름-강-대양으로 이어지는 이 커다란 자연의 순환운동 역시 우주적 조화의 표현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

4) <밤의 노래>는 밤의 시대인 현재에 신들의 지상재래를 예고하는 노래일 것이다.

J. Schmidt는 이 말에서, 피타고라스 전통에서 유래하여 스토아 학파로 이어지는 <천구의 화음 Sphärenharmonie>설을 본다. 스토아 학파는 천구의 화음을 우주 전체의 조화와 공감의 표지로 보았다. Vgl. J. Schmidt : Natur und Kultur in Hölderlins "Archipelagus", in : F. Hölderlin. Der Archipelagus. Faksimile der Homburger Handschrift, Nürtingen 1987. S. 67.

5)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Zenon은 호기를 우주운행의 주도자로서의 최고 신(神)으로 보았다. Vgl. Ibid. S. 68.

6) Schmidt는 팔을 벌린 주체를 대양으로 보고 있으나 나일강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아들인 강이 아버지 대양이 <그리워 der sehrende> 대양을 향해 달려온 것이고, 또 <벌린 팔>이 나일강 하구 삼각주를 의미 한다고 볼 때 그것은 강의 팔이지 대양의 팔이 아니다. Vgl. Ibid. S. 59.

양(신)은 <슬퍼하는 신>(v. 39)이다. 시의 제1부의 마지막 부분인 제4연에서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신은 외롭다고 생각한다. 말없는 밤에  
바위가 당신의 탄식을 듣는다. 그리고 자주 당신의 날개 돋은  
파도가 분노하며 인간들을 떠나 하늘로 도주한다.  
당신이 사랑하던 고귀한 이들이 더는 당신과 더불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때 당신을 존경했고 아름다운 사원과 도시로 당신의 해안을  
장식해 주던 이들이 아닌가. 하며 영웅이 화관을 필요로 하듯,  
신성한 자연력이 그 명예를 위해 언제나 찾고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것 있으니, 인간들의 느끼는 마음이 그것이다.

Dennoch einsam dünkest du dir; in schweigender Nacht hört  
Deine Weheklage der Fels, und öfters entflieht dir  
Zurnend von Sterblichen weg die geflügelte Wooge zum Himmel.  
Denn es leben mit dir die edlen Lieblinge nimmer,  
Die dich geehrt, die einst mit den schönen Tempeln und Städten  
Deine Gestade bekränzt, und immer suchen und missen,  
Immer bedürfen ja, wie Heroën den Kranz, die geweihten  
Elemente zum Ruhme das Herz der fühlenden Menschen. (v. 54~61)

에게해가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탄식을 하다못해 <분노하며 하늘로 도주해 버리고>7) 마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던 고귀한 이들>, 즉 <신성한 자연력>8)을 존경하며 아름다운 사원을 지어 바치면서 찬란한 문화를 이루던 옛 사람들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들의 느끼는 마음>이며, 신들은 그 <느끼는 마음에 기대기를 좋아하는> 것이다.9) 그러나 인간들은 이제는 더는 <예전 처럼>(v. 29) 신들을 우러러 보지 않으며 <어둠속을 헤매고 있고>, <자신의 일에만 매여 있다>(v. 241 ff.)

자연안의 모든 존재가 여전히 서로간에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고 천상과 지상 조차 서로 화답하는데, 오직 인간세계만은 이 조화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인간이 신성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며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시대를 시인은 알고 있다. 옛 그리스의 아테네 시대가 그것이다.

7) <날개 돋은 파도가 하늘로 도주해 버린다>함은 바다에서 증발해 구름이 되는 증기를 일컬음이다.

8) 범신론적으로 이해된 자연.

9) Vgl. v. 25 u. v. 235 von diesem Gedicht u. auch v. 109~114 von der Hymne 「Der Rhein」 (Bd 2. 1. S. 145).

III

시인은 이제 옛 그리스의 아테네로 눈을 돌려, 초기의 아테네로부터 시작하여 아테네의 멸망과 그 재건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인류문화의 발생조건을 천착한다. 시 전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총 6연 138행을 이 제2부에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도 시인이 이 부분에 두고 있는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제2부는 다시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먼저 그 첫 부분인 제5연에서는 고대 그리스적인 삶의 불변의 기본 성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다.

말해보오, 아테네가 어디에 있소? [……]

당신의 도시 허물어져 내려 재가 되고 말았는가, 슬픔에 잠긴 신이시여!

[……]

거기 기둥들이 우뚝 솟아 있지 않았던가? 하며 거기 신상(神像)들이

성채의 지붕에서 내려다보며 빛나고 있지 않았던가?

거기 폭풍과도 같이 격렬한 민중의 목소리가

아고라 광장<sup>10)</sup>에서 들려오지 않았던가.

[……]

보라! 저기 먼 옛 생각에 잠겨 있는 사공이 즐겁게 닻을 올렸다,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 그에게도 불어왔기 때문이다. 신들은

시인을 사랑하듯 사공도 사랑했으니, 그가 지상의 좋은 선물들을

골고루 갖도록 해주었고 먼 것과 가까운 것을 하나로 합쳐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멀리 싸이프러스로 여행하며 멀리 튀로스로 간다.

콜히스로 애써 올라가고 고대 이집트로 내려온다.

고향사람들이 쓸 자색염료와 포도주와 곡식과 양털을

얻어 오려 함이라.

[……]

반면에 도시의 해안에는 달리 마음이 끌린 고독한 소년이

머무적거리며 파도소리에 귀 기울인다. 하며 그 진지한 자가

지구를 뒤흔드는 스승의 발치에 앉아 귀 기울일 때, 위대한 것을

예감하니, 대양신이 그를 길러낸 것 헛된일 아니었다.

Sage, wo ist Athen? ist [……]

Deine Stadt, [……]

Trauernder Gott! dir ganz in Asche zusammengesunken,

[……]

Stiegen dort die Säulen empor und leuchteten dort nicht

Sonst vom Dache der Burg herab die Göttergestalten?

10) Agora : 대중집회가 열렸던 아테네의 장터.

Rauschte dort die Stimme des Volks, die stürmischbewegte,  
 Aus der Agora nicht her, [ …… ]  
 [ …… ]  
 Siehe! da loste sein Schiff der fernhinsinnende Kaufmann,  
 Froh, denn es wehet' auch ihm die beflügelnde Luft und die Götter  
 Liebten so, wie den Dichter, auch ihn, dieweil er die guten  
 Gaaben der Erd' ausglich und Fernes Nahem vereinte.  
 Fern nach Cypros ziehet er hin und ferne nach Tyros,  
 Strebt nach Kolchis hinauf und hinab zum alten Aegyptos,  
 Daß er Purpur und Wein und Korn und Vliese gewinne  
 Für die eigene Stadt, [ …… ]  
 [ …… ] indessen  
 Anders bewegt, am Gestade der Stadt ein einsamer Jüngling  
 Weilt und die Wooge belauscht, und Großes ahndet der Ernste,  
 Wenn er zu Füßen so des erderschütternden Meisters  
 Lauschet und sitzt, und nicht umsonst erzog ihn der Meergott. (v. 62~85)

시인은 이제는 사라져버린 찬란했던 옛 아테네 문화를 회상하면서, 그러한 문화를 일구어낸 토대를 생각한다. 아테네인들은 신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방으로 무역로를 열었다. 그들의 활동범위는 포도주 산지였던 싸이프러스, 자색염료로 유명했던 튀로스, 북쪽으로는 양모생산지였던 흑해 동쪽해안의 콜히스지방, 남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곡창 이집트까지 뻗어 나갔다. 그러한 무역활동이 아테네의 경제적 정치적 힘의 토대가 되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어릴 적부터 <지구를 뒤흔드는 스승><sup>11)</sup>인 대양신의 가르침을 받으며 길러진 소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시의 다음 부분에서 노래되고 있는 잘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를 승리로 이끈 명장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kles)였다.<sup>12)</sup> 즉 왕성한 무역활동도 해전에서의 승리도 바다와의 친숙함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테네의 위대한 문화는 자연과의 이러한 친숙함이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제2부의 둘째 부분인 제 6, 7, 8연에서는 페르샤의 침입으로 인한 아테네의 멸망과 잘라미스 해전광경이 약 50여행에 걸쳐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다. 아테네 문화의 전성기를 선행하는 시련의 시기를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은 시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헥사메터 운율의 서사적 성격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무기를 갈며 <하인들>(v. 87)을 기르고 있었던 페르샤의 왕 크세르크세스(Xerxes)는 분명하진 않지만 (<꿈속에서처럼> v. 89) <신적 정신으로 무장된>(v. 90) 것 같은 아테네를 침범한다. 전체군주국인 페르샤의 병사들은 왕의 <하

11) 그리스 문학에서 대양신 Poseidon의 별명이 <지구를 뒤흔드는 자>이다.

12) Vgl. J. Schmidt : Natur u. Kultur, S. 70.



인들>에 지나지 않지만 민주주의국가인 아테네 민족은 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민족이다. 제6연 첫 부분에서의 두 민족간의 이러한 대비는 어느 민족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것인지를 미리 암시하고 있다. 이어 아테네 함락의 광경이 그려진다.

[……] 그리고 샹숯듯 하는 불덩이가  
 부글부글 끓는 에트나 화산에서 무섭게 쏟아져 내려  
 그 심홍색의 물결속에 도시도 꽃피는 정원도 물어버리고  
 마침내 성스러운 대양에 이르러서야 불길의 강물이 식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왕과 더불어 그의 화려한 무리들이 재빨리  
 에크바타나에서<sup>13)</sup> 돌진해 내려와선 도시들을 불태우고 황폐화시킨다.  
 아, 슬프다, 영광의 아테네가 함락되고 마는구나. 정녕 염수에게도  
 그 울부짖음 소리 들리는 산속에서 도주하던 노인들이 뒤돌아보며  
 저기 집으로, 연기내며 타고 있는 사원으로 되돌아가려 애를 쓴다.  
 하지만 자식들의 기도도 이제 더는 저 성스러운 재를  
 깨우지는 못한다. 골짜기에 죽음이 있고 피어오르는 화연이  
 하늘가에 사라져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더 많은 수확을 위해  
 이 페르샤인은 자신의 죄악에 흥분되어 전리품 갖고 진군한다.

[……] schnell, wie der flammende Bergquell,  
 Wenn er furchtbar umher vom gährenden Aetna gegossen,  
 Städte begräbt in der purpurnen Fluth und blühende Gärten,  
 Bis der brennende Strom im heiligen Meere sich kühlet,  
 So mit dem Könige nun, versengend, städteverwüstend,  
 Stürzt von Ekbatana daher sein prächtig Getümmel;  
 Weh! und Athene, die herrliche, fällt; wohl schauen und ringen  
 Vom Gebirg, wo das Wild ihr Geschrei hört, fliehende Greise  
 Nach den Wohnungen dort zurück und den rauchenden Tempeln;  
 Aber es wekt der Söhne Gebet die heilige Asche  
 Nun nicht mehr, im Thal ist der Tod, und die Wolke des Brandes  
 Schwindet am Himmel dahin, und weiter im Lande zu erndten,  
 Zieht, vom Frevel erhitzt, mit der Beute der Perse vorüber. (v. 91~103)

페르샤의 대왕 크세르크세스는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렌(Thermopylen)에서 스파르타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같은 해에 아테네를 함락시키지만 뒤이은 잘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다. 제 7, 8연은 이 잘라미스 해전 장면의 묘사이다.

13) Ekbatana는 카스피해 남쪽에 있는 옛 페르샤왕의 여름별장.

하지만 잘라미스 해안의, 오 잘라미스 해안의 그 날이여!

[……]

그러나 영웅들의 자손인 민족의 전사들은 이제  
 보다 밝은 눈으로 임한다. 이 신들의 총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행운을 생각한다. 아테네 여신의 자식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신들의 수호신을 이제 제어하지 않는다  
 김이 나는 핏속에서 황야의 들짐승이 다시 한번  
 마치 보다 숭고한 세력이나 되듯 마지막으로 변신하여 몸을 일으켜선  
 사냥꾼을 놀라게 하듯 하기 때문이다. 번쩍거리는 무기들 가운데서  
 이제 지배자들의 명령에 따라, 파멸의 한 가운데서도  
 야만인들의 지친 영혼이 무섭게 힘을 모아 다시 한번 일어선다.  
 그리고 전투가 격렬해지기 시작한다. 쌍을 이루어 맞붙어 싸우는 전사들처럼  
 전함들이 서로 맞붙는다. 키가 비틀거리며 파도를 가른다.  
 전사들의 발밑에서 바닥이 부서져 나가고, 사공도 배도 함께 침몰한다.

[……]

피투성이 사자(使者)들, 맞아 죽은 병사들, 두 동강 나는 함선들을  
 천둥치는 듯한 파도가 복수자 되어 수없이 그의 [페르샤왕] 옥좌 앞에  
 내던진다. 요동치는 해안에 앉아 있는 이 가련한 자,<sup>14)</sup>  
 도주하는 부하들을 바라보다가, 도망가는 군중에 휩쓸려  
 자신도 허둥지둥 떠난다. 신이 그를 몰아낸다, 그의 길잃은 함대도  
 물결넘어 몰아낸다. 마침내 신이 왕의 헛된 무장을 조롱하며  
 때려부수고 그의 위협적 무장 아래 신음하던 약자에게 이르른 것이다.

Aber an Salamis Ufern, o Tag an Salamis Ufern!

[……]

Aber die Männer des Volks, die Heroënenkel, sie walten  
 Hellere Augen jetzt, die Götterlieblinge denken  
 Des beschiedenen Glücks, es zähmen die Kinder Athenes  
 Ihren Genius, ihn, den todverachtenden, jetzt nicht.  
 Denn wie aus rauchendem Blut das Wild der Wüste noch einmal  
 Sich zuletzt verwandelt erhebt, der edleren Kraft gleich,  
 Und den Jäger erschrockt: kehrt jetzt im Glanze der Waffen,  
 Bei der Herrscher Gebot, furchtbargesammelt den Wilden,  
 Mitten im Untergang die ermattete Seele noch einmal.  
 Und entbrandter beginnts; wie Paare ringender Männer

14)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8권 90장에 의하면 페르샤대왕 크세르크세스는 잘라미스의 맞은편 산 Aigaleos(오늘날의 Skaramanga)에 앉아 해전을 관전했다고 전한다. Vgl. J. Schmidt · Natur u. Kultur. S. 73.

Fassen die Schiffe sich an, in die Wooge taumelt das Steuer,  
Unter den Streitern bricht der Boden, und Schiffer und Schiff sinkt.

[ …… ]

Blutige Boten, Erschlagne des Heers, und berstende Schiffe,  
Wirft die Rächerin ihm zahllos, die donnernde Wooge,  
Vor den Thron, wo er sitzt am bebenden Ufer, der Arme,  
Schauend die Flucht, und fort in die fliehende Menge gerissen,  
Eilt er, ihn treibt der Gott, es treibt sein irrend Geschwader  
Über die Fluthen der Gott, der spottend sein eitel Geschmeid ihm  
Endlich zerschlug und den Schwachen erreicht' in der drohenden Rüstung.

(v. 104~135)

아테네인들이 <민족의 전사>요 <신들의 총아>로 불려지는 반면 페르샤인들은 <하인>에 이어 여기서는 <야만인>으로 격하된다. 크세르크세스가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천둥치는 듯한 파도>, 즉 대양신의 복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이 그를 몰아낸> 것이다. 폭력적인 반자연에 대한 자연의 복수인 것이다. 페르샤인들이 구축하고 있던 질서는 신, 즉 자연에 어긋나는 질서였던 반면, 아테네인들의 질서는 자연에 부합하는 질서였던 것이다. 시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페르샤에 대한 아테네의 승리라는 역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갖는 역사철학적 의미였다.

시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 보다는 제2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서사적 성격은 개별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한 문체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서사적 비유에서도 드러난다. 제6연에서 도시를 불태우며 진군하는 페르샤군을 에트나화산에서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용암에 비유한 것이나, 제7연에서 패색이 짙어진 페르샤군의 마지막 발악을 사냥꾼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한 번 몸을 일으키는 황야의 들짐승에 비유한 것 등이 그것이다.

잘라미스 해전에서의 승리는 곧바로 아테네 재건으로 이어진다. 제2부의 셋째 부분인 제9연은 이 아테네 재건을 노래한다.

[ …… ] 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오랜 세월 뒤에 다 큰 젊은이 되어 살아서  
그녀의 품으로 돌아올 때의 노쇠한 어머니를 생각해 보라,  
그녀의 영혼은 상심으로 시들어져 있고 기쁨은  
바람에 지친 여인에게는 너무 늦게 온 것인즉, 사랑하는 아들이  
감사해하며 한 말 간신히 알아들을 뿐이다.  
저기 돌아오고 있는 이들에게 고향의 땅이 그렇게 여겨진다.

[ …… ]

그렇지만 이 황폐해진 골목길도 슬퍼하고 있는 정원들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주랑의 기둥들도  
 신상들도 쓰러져 널려 있는 아고라 광장에서  
 영혼이 감동하고 신의를 기뻐하며 이제  
 사랑하는 민족이 동맹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는다.

[ …… ]

하지만 사람들은 천막을 세우고, 옛 이웃들이  
 다시 합쳐지며, 늘상 그렇듯 마음이 하라는 대로  
 언덕위 곳곳에 바람 잘 통하는 집들이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그 옛날의 자유민들처럼 살아간다.

[ …… ]

하지만 신의 있는 어머니 대지는 예전처럼 여전히  
 자신의 훌륭한 민족을 또다시 얼싸 안는다. 하며 성스러운 하늘 아래서  
 그들은 조용히 쉰다. 그럴 때면 예전처럼 청춘의 미풍이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불어오고, 플라타너스 사이로  
 일리쉴스강<sup>15)</sup>의 물소리 정겹게 들려온다. 새로운 날을 예고하며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면서, 밤이면 태양신의 파도소리가  
 멀리서 울려오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즐거운 꿈을 보내준다.

[ …… ]

[ …… ] ach! gleich der gealterten Mutter,  
 Wenn nach Jahren das Kind, das verlorengedachte, wieder  
 Lebend ihr an die Brüste kehrt, ein erwachsener Jüngling,  
 Aber im Gram ist ihr die Seele gewelkt und die Freude  
 Kommt der hoffnungsmüden zu spät und mühsam vernimmt sie,  
 Was der liebende Sohn in seinem Danke geredet;  
 So erscheint den Kommenden dort der Boden der Heimath.

[ …… ]

Aber wohl sind ihnen bekannt die verödeten Gassen  
 Und die trauernden Gärten umher und auf der Agora,  
 Wo des Portikus Säulen gestürzt und die göttlichen Bilder  
 Liegen, da reicht in der Seele bewegt, und der Treue sich freuend,  
 Jezt das liebende Volk zum Bunde die Hände sich wieder.

[ …… ]

Aber Gezelte bauet das Volk, es schließen die alten  
 Nachbarn wieder sich an, und nach des Herzens Gewohnheit  
 Ordnen die luftigen Wohnungen sich umher an den Hügeln.  
 So indessen wohnen sie nun, wie die Freien, die Alten,

[ …… ]

15) Ilissus강은 아테네를 흐르는 작은 강

Doch umfangt noch, wie sonst, die Muttererde, die Treue,  
 Wieder ihr edel Volk, und unter heiligem Himmel  
 Ruhen sie sanft, wenn milde, wie sonst, die Lüfte der Jugend  
 Um die Schlafenden wehn, und aus Platanen Ilissus  
 Ihnen herüberrauscht, und neue Tage verkündend,  
 Lokend zu neuen Thaten, bei Nacht die Wooge des Meergotts  
 Fernher tönt und fröhliche Träume den Lieblingen sendet.  
 [ …… ] (v. 139~174)

제9연의 첫 부분에서 또다시 6행에 걸쳐 서사적 비유가 등장한다. 다시 밟는 고향의 땅을, 너무 늦게야 돌아온 자식의 말을 간신히 알아듣는 노쇠한 어머니에 비긴 것이 그것이다. 고향은 황폐해져버리고 말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전제가 된다. 아테네인들은 <다시 손을 맞잡고> 도시재건을 시작하여 <예전처럼>(v. 168, 170, 178) <자유민>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 공동체의 요체는 곧 신, 즉 자연과의 일체감이다. 그래서 어머니 대지가 <예전처럼> 또다시 민족을 얼싸안으며,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예전처럼> 온화한 청춘의 미풍이 불어오고, 밤이면 대양신이 미래를 약속하는 <즐거운 꿈>을 보내주는 것이다. <예전처럼>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자연에의 부합이 곧 옛 그리스적 삶의 불변의 기본 성격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제2부의 마지막 부분인 제10연에서는 이제 전쟁전의 모습을 훨씬 능가하는 위용을 갖추며 찬란하게 꽃피어나는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문화를 노래한다.

그러나 어머니 대지와 파도의 신의 영예를 위해  
 이제 도시가 번영하니, 별들처럼 견고하게 건립된 영광스러운  
 구성물이요 수호신의 작품이라, [ …… ]  
 [ …… ]  
 보라! 하며 창조하는 분께 숲이 시중을 든다. 가까이 있는 다른  
 산들 더불어 펜텔레산이 대리석과 광석을 그 분께 바친다.  
 [ …… ]  
 샘물이 솟아오르고 [ …… ]  
 하며 수로를 따라 주위에는 [ …… ]  
 [ …… ] 열지은 주택들이 번쩍인다.  
 시 의사당이 높이 솟아 있고, 체육관들이 활짝 열려 있다.  
 신전들이 세워지고, 성스럽고 대담한 착상의  
 제우스 신전이<sup>16)</sup> 복된 임원에서 신들에 가까이 창공으로  
 치솟는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신들의 호올이던가!  
 어머니 아테네 여신이시여, 당신을 위해서도 당신의 영광스런 언덕이  
 더욱 당당하게 슬픔으로부터 일어서서 오랫동안 변성하지 않았소.

16) 아테네 동남부에 세워진 제우스 신전은 그 기둥이 하늘로 치솟을듯 대단한 위용을 보여준다.

파도의 신과 당신을 위함이었소. 그리고 당신의 총아들이  
 여전히 자주 곳<sup>17)</sup>에 즐겁게 모여 당신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소.

Aber der Muttererd' und dem Gott der Wooge zu Ehren  
 Blühet die Stadt izt auf, ein herrlich Gebild, dem Gestirn gleich  
 Sichergegründet, des Genius Werk, [ …… ]  
 [ …… ]  
 Sieh! und dem Schaffenden dienet der Wald, ihm reicht mit den andern  
 Bergen nahe zur Hand der Pentele Marmor und Erze,  
 [ …… ]  
 Brunnen steigen empor [ …… ]  
 Und umher an ihnen erglänzt, [ …… ]  
 [ …… ], die Reihe der Wohnungen, hoch ragt  
 Der Prytanen Gemach, es stehn Gymnasien offen,  
 Göttertempel entstehn, ein heiligkuhner Gedanke  
 Steigt, Unsterblichen nah, das Olympion auf in den Aether  
 Aus dem seeligen Hain; noch manche der himmlischen Hallen!  
 Mutter Athene, dir auch, dir wuchs dein herrlicher Hügel  
 Stolzer aus der Trauer empor und blühte noch lange,  
 Gott der Woogen und dir, und deine Lieblinge sangen  
 Frohversammelt noch oft am Vorgebirge den Dank dir. (v. 179~199)

수호신에 의한 아테네 재창조는 눈부시다. 아테네 동북쪽의 펜텔레산이 제공하는 대리석으로 지어, 솟아오른 샘물이 이루는 수로를 따라 주택들이 열을 지어 들어선다. 시 의사당과 체육관이 세워지고 신전들이 치솟는다. <영광스런 언덕>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테네여신을 모시는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지고 수니온곶에는 대양신 포세이돈의 신전이 재건된다. 이 모두가 아테네 여신과 대양신을 위함이었으니, 대양신 포세이돈은 도시의 수호신 아테네 여신과 더불어 아테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이었다. 옛 아테네인들은 이렇게 신들을 섬길 줄 알았으며 그로써 자연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고 동시에 찬란한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의 친숙함으로 위대한 문화를 일구었던 옛 아테네는 이제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인이 살고 있던 시대는 옛 그리스 시대와는 너무도 다른 시대인 것이다. 그러기에 제2부의 마지막에서 보인 옛 그리스 문화에 대한 시인의 열광적 찬미는 시대의식이 되살아나면서 슬픔으로 전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의 제3부는 이제 비가적 음조로 시작한다.

17) 곳 : 아테네 동남쪽 끝에 있는 수니온 곶(Kap Sunion).

IV

아름다운 과거에 도취되어 있던 시인에게 <어둠속을 헤매며>(v. 241ff.) 자연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시대가 다시 의식되면서 시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제11연과 12연의 두 연 97행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제3부는 서사적 성격이 두드러졌던 제2부와는 달리 이 시의 비가적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잃어버린 아름다운 과거와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노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훔덜린의 비가 문학의 특징이<sup>18)</sup>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제11연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먼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이 노래된다.

오, 행복의 자식들, 저 경건한 이들! [……]  
 아무리 그리워한들 그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가?  
 [……]  
 그대들 신과 같은 존재들이여! [……]  
 하지만 그대들에게 더 가까이 가겠소, 그대들의 임원이 아직 자라고 있는 곳,  
 성스러운 산이 그 외로운 머리를 구름속에 숨기고 있는 곳,  
 파르나소스로 가겠소, 거기 떡갈나무의 어둠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면서 카스탈리아 신천(神泉)이 길잃은 나를 맞아 줄 때면,  
 나는 꽃향기 가득한 잔으로, 눈물로 뒤범벅이 된  
 물을 떠서 싹터 나오는 풀위로 쏟아 붓겠소, 그리하여  
 오 자고 있는 그대들 모든 이여! 그대들 영전에 한가지 제물이나마 바쳐지리다.  
 거기 말없는 템페콜짜기의 돌출바위 곁에서  
 내 그대들 더불어 살리다. [……]

O die Kinder des Glücks, die frommen! [……]  
 [……] bringt kein Sehnen sie wieder?  
 [……] ihr göttergleichen Gestalten!  
 [……]  
 Aber näher zu euch, wo eure Haine noch wachsen,  
 Wo sein einsames Haupt in Wolken der heilige Berg hüllt,  
 Zum Parnassos will ich, und wenn im Dunkel der Eiche  
 Schimmernd, mir Irrenden dort Kastalias Quelle begegnet,  
 Will ich, mit Thränen gemischt, aus blüthenumdufteter Schaale  
 Dort, auf keimendes Grün, das Wasser gießen, damit doch,  
 O ihr Schlafenden all! ein Todtenopfer euch werde.

18) 줄고 「훔덜린의 비가문학」, 독일문학 제48집(한국 독어독문학회, 1992), 36쪽 이하 참조.

Dort im schweigenden Thal, an Tempes hangenden Felsen,  
Will ich wohnen mit euch, [……] (v. 200~216)

옛 그리스인들은 신들을 존경할 줄 아는 <경건한 이들>이었다. 시인은 그들 <신과 같은 존재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절실한 소망을 노래한다. 그래서 아폴로에게 신탁을 묻던 델피 신전이 있고 시적 영감의 원천으로 간주되던 카스탈리아 신전이 있는 성스러운 산 파르나소스로 가려하고, 템페 골짜기로<sup>19)</sup> 가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옛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 지상에는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을 추념하기 위해 <눈물로 뒤범벅이 된> 한 잔의 물이라도 떠서 그들의 영전에 바치려 하는 것이다.<sup>20)</sup>

옛 그리스에 대한 시인의 그리움과 탄식은 연이어 계속된다. 시인은 그 옛날 신들이 인간들에게 예언을 해 주었던 세 곳을 회상한다. 그러나 그 신탁소들도 이제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떡갈나무의 살랑거리는 소리에서 예언을 들었다는 도도나(Dodona)의 제우스 신탁소도, 델피의 아폴로 신탁소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는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으며>(v. 226f.), 뛰어난 예언자 타이레지아스(Teiresias)가 살았던 도시 테베(Theben)의 오솔길들도 <황량하게 버려진지 오래이다>(v. 228f.). <인간들의 느끼는 마음에 기대기를 좋아하는>(v. 235) 천상의 신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 <위대한 천둥신의 목소리가/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느냐고 소리치며>, <대양신의 울부짖는 파도가/너희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고 맞받아 메아리 친다.>(v. 232ff.) 그러나 인간들은 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시인의 비판이 이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열광하게 하는 세력들은 예전처럼 언제나  
노력하는 인간을 인도하기 좋아한다. 하며 고향의 산 위에도  
호기(瀨氣)가 살아 편재하며 다스리고 있음으로 해서,  
사랑하는 민족이 아버지의 팔안에 모여들어 예전처럼  
인간적으로 기뻐하고 만인이 하나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으련만.  
하지만 슬프도다, 인간종족은 어둠속을 헤매고 있으며  
신성을 멀리한 채 지하세계에서처럼 살고 있다. 자신의 일에만  
모두가 매여 있다. 노호하는 듯한 작업장에서  
누구나 자신의 소리만을 듣는다. 하며 이 야만인들은 억세계  
그 힘센 팔로 끊임없이 일을 하지만, 이 가련한 자들의 수고는  
복수의 여신들처럼 언제나 지나 결실없는 채 남는다.

19) 테살리엔(Thessalien)지방의 골짜기로, 그 동쪽 출구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20) 옛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자주 사용된 제물은 물, 우유, 포도주 등의 음료였고, 이 때 사용된 잔에는 꽃가지를 들렀다 한다. Vgl. Kommentar zu diesem Gedicht, in : SWB, Bd 1. S. 696f.



Immer, wie sonst, geleiten sie noch, die begeisternden Kräfte,  
 Gerne den strebenden Mann und über Bergen der Heimath  
 Ruht und waltet und lebt allgegenwärtig der Aether,  
 Daß ein liebendes Volk in des Vaters Armen gesammelt,  
 Menschlich freudig, wie sonst, und Ein Geist allen gemein sei.  
 Aber weh! es wandelt in Nacht, es wohnt, wie im Orkus,  
 Ohne Göttliches unser Geschlecht. Ans eigene Treiben  
 Sind sie geschmiedet allein, und sich in der tosenden Werkstatt  
 Höret jeglicher nur und viel arbeiten die Wilden  
 Mit gewaltigem Arm, rastlos, doch immer und immer  
 Unfruchtbar, wie die Furien, bleibt die Mühe der Armen. (v. 236~246)

<고향의 산 위에도> 여전히 호기가 다스리며 만물을 꿰뚫어 통일을 이루어주려 하나<sup>21)</sup> 인간들은 그 <인도>를 받기를 거부한다. 온 민족이 <예전처럼> <하나의 정신을 공유하여>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에도, 인간들은 <신성을 멀리한 채>, <어둠 속을 헤매는>, <야만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현대의 독일인들을 옛 페르샤인들에 비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잘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인들에게 패퇴한 페르샤인들을 <야만인들>(v. 120)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시인이 자신의 시대의 독일인들을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자신의 일에만 매여 있고>, <자신의 소리만을 듣기> 때문이다. 이미 소설 「휘페리온 Hyperion」 제2권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주인공 휘페리온의 입을 통해 독일인들을 <옛부터 야만인들 Barbaren von alters her>이라 질책한 바 있다.

옛부터 야만인들이다. 근면과 학문과 종교를 통해서조차 더욱더 야만적이 되어버렸고 그 어떤 신적인 감정도 전혀 가질 수 없이 되어버렸다. [……]  
 가혹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독일인들보다 더 분열된 민족을 상상할 수 없다. 수공업자는 있어도 인간은 없고, 사상가는 있어도 인간은 없으며, 사제는 있어도 인간은 없다. 주인과 종이 있고 젊은이들과 분별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인간은 없다. 그것은 마치 흘린 피가 모래에 스며들고 있는데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사지가 동강나 널려 있는 전장과 같지 않은가?<sup>22)</sup>

시인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현대인의 속물적 전문가 근성인 것이다. 현대인은 오직 자신의 전문분야에만 갇혀서 총체적 인간성의 계발이 저해되어 단편적 인간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인이 하나의 정신을 공유하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시인은

21) 제1부의 43행 및 註 5) 참조.

22) Bd 3, S. 153.

<야만적>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시의 제1부에서 본 바와 같이 온 우주의 조화와 통일성을 보는 시인의 눈에 이러한 상태의 삶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되는 삶이 아닌 것으로 비친 것은 당연하다. 자연에 가까운 삶을 영위하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옛 아테네인들과 달리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옛 페르시아인들이 야만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이 살고 있던 시대 역시 야만적이 되고 있음을 시인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빅크만의 주장처럼 시의 제2부에서 그리스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을 대치시킨 것은 <현대사적 긴장을 포착하기 위한 가장>이었던 것이다.<sup>23)</sup>

바람직하지 못한 현재에 대한 한탄은 이제 신의 새로운 출현에 대한 예견과 그로써 이루어질 미래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환상으로 넘어가며 그에 맞추어 음조도 다시 찬가적으로 바뀐다.

그러다 급기야는 [……]

[……]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자연의 정신이, 신(神)이, 다시  
조용히 머뭇거리면서 황금빛 구름에 싸여 나타날 것이다.

[……]

하지만 더 오래는 안된다! 벌써 나는 멀리 푸른 산위에서의  
축제일의 합창과 임원에 울리는 그 메아리를 듣는다.  
거기 젊은이들의 가슴이 부풀어오르고, 민족의 영혼이  
보다 자유로운 노래 속에서 조용히 하나가 되니, 마땅히 높은 곳에 계시  
신의 영광을 위협이라, 하지만 골짜기 역시 성스럽다.

[……]

또한 햇빛 찬란한 평원에서 좋은 품종의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며,

[……] 도시의 언덕에서는

인간이 사는 집처럼 기쁨의 천상 호율이 빛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신성한 의미로 가득차 버렸기 때문이다.  
하며 예전처럼 그대는 다시 도처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자식들에게  
나타나는구나, 오 자연이여! 그리고 산속 샘물이 흘러내리듯  
쏟아져오는 민족의 영혼 속으로 여기저기서 축복이 흘러든다.

그러면, 그러면 오 그대들 아테네의 기쁨이여! 그대들 스파르타의 행동이여!

그리스의 즐거운 봄철이여! 우리의 가을이 올 때면,  
그대들 그 예날의 모든 영(靈)들이여, 그대들이 성숙하여  
돌아올 때면, 하며 보라! 세월의 완성이 가까웠구나!

23) Paul Böckmann : Hölderlin und seine Götter, München 1935, S. 351, zit. nach : F. Hölderlin: Sämtliche Gedichte, hrsg. u. kommentiert v. Detlev Lüders, Bad Homburg 1970. Bd 2 (Kommentar). S. 242.

Bis [ …… ]

Uns der Geist der Natur, der fernherwandelnde, wieder  
Stilleweilend der Gott in goldnen Wolken erscheint.

[ …… ]

Aber länger nicht mehr! schon hör' ich ferne des Festtags  
Chorgesang auf grünem Gebirg' und das Echo der Haine,  
Wo der Jünglinge Brust sich hebt, wo die Seele des Volks sich  
Stillvereint im freieren Lied, zur Ehre des Gottes,  
Dem die Höhe gebührt, doch auch die Thale sind heilig;  
Denn, [ …… ]

[ …… ] wo auf sonnigen Ebenen

Edles Korn und der Obstwald reift, [ …… ]

[ …… ] auf dem Hügel der Stadt glänzt,

Menschlicher Wohnung gleich, die himmlische Halle der Freude.

Denn voll göttlichen Sinns ist alles Leben geworden,

Und vollendend, wie sonst, erscheinst du wieder den Kindern

Überall, o Natur! und, wie vom Quellengebirg, rinnt

Seegen von da und dort in die keimende Seele dem Volke.

Dann, dann, o ihr Freuden Athens! ihr Thaten in Sparta!

Köstliche Frühlingszeit im Griechenlande! wenn unser

Herbst kömmt, wenn ihr gereift, ihr Geister alle der Vorwelt!

Wiederkehret und siehe! des Jahrs Vollendung ist nahe! (v. 247~274)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문화는 신(神)으로서의 <자연의 정신>이 지상에 찾아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연의 정신>이라 함은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던 원래의 완전한 자연의 상태의 영화(靈化)를 이르는 것이리라. 마치 그 옛날 아테네와 같은 모습이 재현된다. 축제일의 합창이 임원에 울려 퍼지고 햇빛 가득한 들에는 곡식이 무르익어가며 제2의 아크로폴리스(<도시의 언덕>)에는 빛나는 신전이 들어선다. 도처에서 축복이 흐르고 모든 삶이 신성한 의미로 충만된다. 시인이 환상속에서 선취한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그러나 몇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고대 그리스세계를 우리 시대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다. 완전했던 상태의 원래의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의 정신>이 지상을 찾아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대 세계 그 자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의 영(靈)들이 <성숙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그 시기가 바로 <우리의 가을>이다. 인류역사가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시인이 비가 「빵과 포도주」에서 노래한 인류역사의 삼단계적 발전이 이미 이 시에서 선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의 완전한 자연상태의 단계였던 옛 그리스 시대(낮의 시대)에서 분열과 갈등의 단계인 시인 자신의 시대(밤의 시대)를 거쳐 원래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미래의 완성의 시대(새로운 낮의 시대)로의 역사발전이 그것이다.

제11연이 이 시에서 가장 긴 78행이나 되었던 것은 시인의 이러한 역사철학적 사유를 하나의 연 안에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슬픈 회상으로부터 불완전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재에 대한 비판을 거쳐, 자연에의 복귀를 통해 옛 아테네에서와 같은 참다운 문화를 일으키는 미래의 예견과 찬미가 한 달음에 노래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서의 <우리의 가을>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지면서, 이제 남아 있는 일은 그 시대가 시작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일이다. 시의 마지막 연인 제12연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까지, 그 동안에 꽃피어라.  
그대들 이오니아의 정원들이여, 오직 꽃피어라.

[……]

그러나 당신, 오 불멸의 대양신이시여, 비록 그리스인들의 노래가  
이제 더는 예전처럼 당신을 찬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파도소리 여전히 자주 내 영혼속에서 울리게 해주오,  
하여 내 정신이 수영선수처럼 겁없이 활기차게 물위에서  
강한 자들의 신선한 기쁨을 익히며 변화와 생성이라는  
신들의 언어를 알아듣게 해주오, 하며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시간이  
너무도 억세게 내 머리를 움켜쥐고 인간들 가운데서의 곤경과  
미혹이 결국 죽을 내 삶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을 때면,  
그러면 나로 하여금 당신 깊은 곳의 평온을 생각나게 해주오.

Aber blühet indeß, bis unsre Früchte beginnen,  
Blüht, ihr Gärten Ioniens! nur, [……]

[……]

Aber du, unsterblich, wenn auch der Griechengesang schon  
Dich nicht feiert, wie sonst, aus deinen Woogen, o Meergott!  
Töne mir in die Seele noch oft, daß über den Wassern  
Furchtlosrege der Geist, dem Schwimmer gleich, in der Starken  
Frischem Glücke sich üb', und die Göttersprache, das Wechseln  
Und das Werden versteh', und wenn die reißende Zeit mir  
Zu gewaltig das Haupt ergreift und die Noth und das Irrsaal  
Unter Sterblichen mir mein sterblich Leben erschütteret,  
Laß der Stille mich dann in deiner Tiefe gedenken. (v. 278~296)

시인은 <우리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바로 그리스의 자연이 옛 찬란했던 문화를 증언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리스의 정원들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며, 외적을 맞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묻혀 있는 마라톤과 헤로네이아 들판이 월계수

있으로 장식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오에타산 골짜기를 흐르는 강물이 <비탄의 소리> (v. 285f.) 드높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v. 278~287).<sup>24)</sup>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일이며 변화와 생성이라는 <신들의 언어>를 알아듣는 일이다. 인간이 자연속에 내재해 있는 신성을 존중하며 자연의 이치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일이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출현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대양신의 <파도소리>를 자신의 영혼으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당신 깊은 곳의 평온>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대양신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대양신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던(v. 8, 9) 시가 다시 대양신을 부르는 것으로 끝난다. 찬가적으로 시작했다가 찬가적으로 끝나는 셈이다. 동시에 시인은 이 마지막 연에서 자연이 인간 삶의 불변의 토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V

우리는 이 시를 고찰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비가 「빵과 포도주」와의 연관하에 살펴 보았다. 운율형식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테마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두 시가 모두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를 바람직하지 못한 시대로 규정하면서 옛 그리스 시대를 모범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 「에게해 군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덧붙여져 있고 그것이 오히려 시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인류문화의 발생조건이라는 테마가 그것이다. 시인이 생각하는, 문화의 발생조건이란 한 마디로 자연의 이치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시인은 그 모범을 페리클레스 시대의 옛 아테네에서 찾고 있다. 옛 아테네인들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찬란한 문화를 일으키는 데에 원동력이 된 것은 신들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믿음이었다. 그것은 곧 <신성한 자연력>(v. 60f.)에 대한 존경에 다름 아니며 자연의 이치에 부합되는 질서와 삶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반면에 전체군주제의 옛 페르샤나, 오직 속물적 전문가들만 득실거릴 뿐 <인간>은 없는 현대는 시인의 눈에는 야만의 상태로밖에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또한 자신의 시대에 대한 시인의 통렬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시인이 택한 운율형식이 핵사메터이다. 이 시가 갖고 있는 비가적 내용만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비가운율인 2행연구가 더 적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특히 시의 제2부의 서사적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보이는 강한 찬가

24) 아테네는 기원전 490년 Marathon 전투에서 페르샤군을 격파했으나 10년 후인 기원전 480년에는 Oeta산과 바다사이의 협로인 Thermopylen에서 스파르타가 페르샤군에 패했다. 기원전 338년에는 Chäronea 들뜰에서 아테네를 선두로한 그리스군이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다.

적 음조는 헥사메터 운율의 사용을 더욱 더 정당화시켜준다. 그렇게 보면 이 시의 장르적 위치는 분명해진다. 이 시는 단순한 비가도, 단순한 찬가도 아니며, 서사성을 띤 비가적 찬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군돌프는 레썩에서부터 쉴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독일의 시인과 사상가들이 옛 그리스의 예술과 사상을 모범으로 받아들였고 모방하려고 노력했지만, 뢰들린처럼 옛 그리스적인 정신이 선형적으로 주어진 사람은 없다고 갈파했다. 뢰들린에게 있어 옛 그리스적인 것은 역사적 경험내용이 아니라 타고난 정신형식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가 사용한 옛 그리스적 운율형식인 헥사메터도 외부로 부터의 단순한 차용이나 모방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던 그리스적인 것의 자연스러운 분출이요 타고난 그의 영혼의 리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회상 속에서 불러내는 옛 그리스의 지명들인 델로스나 테노스가 그렇게도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sup>25)</sup> 군돌프의 이러한 주장이 조금은 과장된 것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뢰들린이 누구 보다는 절실하게 옛 그리스적 정신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정신내용의 일부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시 「에게해 군도」도 그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5) Vgl. Friedrich Gundolf : Hölderlins Archipelagus, in : Hölderlin. Beiträge zu seinem Verständnis in unserem Jahrhundert, hrsg. v. Alfred Kellertat, Tübingen 1961, S. 6ff.

## Benutzte Literatur

### • Hölderlinausgaben

- Friedrich Hölderlin: Sämtliche Werke (Große Stuttgarter Ausgabe), hrsg. v. Friedrich Beißner, Stuttgart 1943ff.
- Friedrich Hölderlin: Sämtliche Werke (Frankfurter Ausgabe), Historisch-Kritische Ausg., hrsg. v. D. E. Sattler, Ffm 1976.
- Friedrich Hölderlin: Sämtliche Werke u. Briefe, hrsg. v. Jochen Schmidt, Ffm 1992.
- Friedrich Hölderlin: Sämtliche Gedichte, hrsg. v. Detlef Lüders, Bad Homburg v. d. Höhe 1970.
- Friedrich Hölderlin: Der Archipelagus. Faksimile der Homburger Handschrift, Nürtingen 1987.

### • Sekundärliteratur

- Beißner, Friedrich: Geschichte der deutschen Elegie, 3.Aufl., Berlin 1965.
- Böckmann, Paul: Hölderlins Naturglaube. Zur Interpretation des Archipelagus-Gedichts, in: ders.: Formensprache. Studien zur Literarästhetik und Dichtungsinterpretation, Hamburg 1966, S. 316~329.
- Gundolf, Friedrich: Hölderlins Archipelagus, in: Hölderlin. Beiträge zu seinem Verständnis in unserm Jahrhundert, hrsg. v. Alfred Kellert, Tübingen 1962, S. 4~17.
- Lepper, Gisbert: Friedrich Hölderlin. Geschichtserfahrung und Utopie in seiner Lyrik, Hildesheim 1972.
- Hof, Walter: Hölderlins Stil als Ausdruck seiner geistigen Welt, Meisenheim 1954.
- Ryan, Lawrence: Hölderlins Lehre vom Wechsel der Töne, Stuttgart 1960.
- Schmidt, Jochen: Natur und Kultur in Hölderlins 'Archipelagus', in: Friedrich Hölderlin: Der Archipelagus. Faksimile der Homburger Handschrift, Nürtingen 1987, S. 57~81.
- Unger, Richard: Hölderlins Major Poetry. The Dialectics of Unity, Bloomington/London 1975.
- Ders.: Friedrich Hölderlin, Boston 1984.
- Wackwitz, Stephan: Trauer und Utopie um 1800. Studien zu Hölderlins Elegienwerk, Stuttgart 1982.
- Walser, Jürg Peter: Hölderlins Archipelagus, Zürich/Freiburg i. Br. 1962.
- Weissenberger, Klaus: Formen der Elegie von Goethe bis Celan, Bern/München 1969.

## ■ Zusammenfassung

## “Der Archipelagus” Hölderlins

Youn-Sheok HOANG

Das Gedicht “Der Archipelagus” hat ein gemeinsames Thema mit der Elegie “Brot und Wein”. In den beiden Gedichten bestimmt der Dichter seine Zeit als die unerwünschte und singt von der Erwartung der kommenden neuen Zeit. In dem Gedicht “Der Archipelagus” können wir noch ein weiteres wichtiges Thema, das eher den Mittelpunkt des Gedichtes bildet, finden. Das ist die Entstehungsbedingung der menschlichen Kultur. Nach den Überlegungen des Dichters blüht die Kultur nur unter der Bedingung, daß man naturgemäßes Leben führt. Er nimmt sich das Perikleische Zeitalter des alten Griechenlands zum Vorbild. Daß die alten Griechen harmonische Gemeinschaft bildete und glänzende Kultur hervorbrachte, das war nur dadurch möglich, daß sie tiefste Verehrung für die Götter und unbegrenztes Vertrauen zu ihnen gehabt hatten. Das ist nichts anderes als die Verehrung für die heilige Naturkraft und die Herstellung der naturgemäßen Gesellschaftsordnung. Dagegen ist die Moderne, in der es nur die spießbürgerlichen Spezialisten, aber keine “Menschen” gibt, in den Augen des Dichters so barbarisch wie das alte monarchische Persien, dessen Gesellschaftsordnung naturwidrig war. In diesem Sinne ist das Gedicht eine harte Kritik an seiner Zeit.

Die der künstlerischen Gestaltung dieses Gedankens gemäße metrische Form hat der Dichter an dem Hexameter gefunden. Das elegische Distichon, eine Alternative, da das Gedicht auch elegischen Charakter aufweist, wäre besonders für den zweiten Teil des Gedichtes, der nachdrücklich epischen Charakter hat, nicht geeignet. Die Aufnahme des Hexameters rechtfertigt außerdem der hymnische Ton am Anfang sowie am Ende des Gedichtes um so mehr. So gesehen wird die gattungsmäßige Kategorie des Gedichtes klar. Es ist weder einfache Elegie, noch einfache Hymne, sondern eine elegische Hymne mit epischem Charakter.

Bei Hölderlin scheint das Griechentum keine von außen aufgenommene, sondern eine eingeborene Form des Geistes zu sein. Das bestätigt sich auch durch dieses Gedicht.



## 彙 報

### □ 초청강연회

1. 일 시 : 1998년 9월 22일 (화) 16:00 ~ 18:00
2. 장 소 : 인문학연구소 회의실
3. 연 사 : Prof. Dr. Klaus-Detlef Müller (독일 튀빙엔 대학교)
4. 연 제 : Die große Kapitulation der kleinen Leute:  
Zu Brechts Mutter Courage und ihre Kinder  
(항복하는 소시민들 : 브레히트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5. 자료 해설 : 최영진 (독일 Karlsruhe 대학 박사, 독문학)
6. 통·번역 : 오성균 (독일 Bochum 대학 박사, 독문학)

### □ 학술강연회

1. 일 시 : 1998년 11월 25일 (수) 14:00 ~ 17:00
2. 장 소 :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3. 발표자 및 제목
  - 김형중 (동양사학과) : 清末 江蘇省의 新政改革과 紳士層
  - 오순희 (독어독문학과)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타난 청년 괴테의 문학 세계
  - 신범순 (국어국문학과) : 정지용 시에서 ‘말’의 이중성에 대하여

### □ 고전총서 간행(서울대학교 출판부)

1. 간계와 사랑 · 빌헬름 텔/이원양 옮김 (1998년 8월)

### □ 운영위원회

1. 일 시 : 1998년 12월 9일 (수)
2. 장 소 : 인문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人文論叢」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로 한다. 다만,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강사 및 조교, 그리고 본 연구소의 기획 사업에 참여한 교외 인사도 투고할 수 있다.
2.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3. 투고 분야는 인문학과 인문학 관련 제분야로 하되, 논문의 내용과 제목은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로 한다.
4.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 워드프로세서 「한글 2.0」 이상으로 작성한 디스켓 1장과 A4 용지로 인쇄한 원고 1부를 제출한다.
5. 투고한 원고는 3명의 익명 평가자의 심사를 거치며 평가자가 수정을 요청하면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6.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와 별책 30부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그 이상의 별책에 대해서는 제작 실비를 필자가 부담한다.
7. 원고 마감은 해마다 4월 30일과 10월 30일, 두 차례로 하며, 투고 및 편집에 관한 연락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로 한다.
8.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 (1) 원고의 첫 페이지에는 논문 제목, 필자명, 소속학과를 쓴다.
  - (2) 외국어로 된 인용문은 가능한 한 국어로 번역하여 본문에 쓰고, 각주란에 외국어 인용문을 쓴다.
  - (3) 국어로 쓴 원고에는 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로 된 요약문을, 외국어로 쓴 원고에는 국어로 된 요약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요약문은 제목, 필자명, 요약 내용의 순으로 쓰되, 분량은 인쇄했을 때 3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한다.
  - (4) 연구비 수혜의 출처, 초록 발표의 사실, 감사 의사 표명(Acknowledgment)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첫 페이지의 각주에 표시한다.
  - (5) 본문 가운데 수치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6) 표는 제1표, 제2표 (혹은 Table 1, Table 2) 등으로 표시한다. 도표는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트래싱 페이지에 먹으로 작성하며, 제1도, 제2도 (혹은 Fig. 1, Fig. 2) 등으로 표시한다. 사진은 명암이 선명하여야 하며, 사진 1, 사진 2 (혹은 Photo 1, Photo 2) 등으로 표시한다.